

전쟁 당사자 빠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반쪽 서명’

100여개국 중 83곳만 서명...멕시코 등 중립국 서명 안해 러시아·중 등 브릭스 대거 불참...스위스 “후속 회의 기대”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애초 불참한 러시아·중국을 물론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보인 나라들마저 빠진 80개국만 공동성명(코뮌iqué)에 합의한 채 마무리됐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16일(현지시간)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투에서 100여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틀간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83개 국가·기관이 서명한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폐회됐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참가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위해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완전 시일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주권적 통제 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흑해와 아조우해에서 자유롭게 안전한 상업적 항해와 항공 접근이 중요하며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은 안전하게 제공돼야 하고, 식량안보를 어떤 식으로든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전쟁포로의 완전한 교환·석방과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아동·민간인 억류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실렸다.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폐회 연설에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며 “유엔 헌장에 근거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추구하지만 공동 이해를 가졌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참가국 중 10여개국만 서명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모의 첫 회의라는 의미가 퇴색했다. 비서명국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소속이다. 이들은 정상급이 아닌 장관급 이하 대표단이 참석했다. 브릭스 가입이 승인된 사우디아라비아와 가입을 추진 중이거나 관심을 표명한 인도네시아, 태국, 리비아, 바레인 역시 공동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밖에 아르메니아, 멕시코, 슬로바키아와 회의 주최국이자 중립국을 표방하는 스위스, 교황청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브릭스 회원국을 포함한 이들 비서명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비서명국의 공통점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라고 짚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회의 불참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가 공동주최하는 회의에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오히려 회의 개막 전날인 14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폐막식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면 즉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맞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이 갈등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중국의 협력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주최국인 스위스는 후속 회의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잇는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참여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슬람 성지 순례 인파... 폭염에 30여명 숨져 16일(현지시간)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인근 마나에 정기 성지순례 인파가 몰려 있다. 이날 메카 일대에서는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성지 순례객 최소 3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난민 아동, 떠도는 설움보다 배고픈 설움

39% “하루 한끼 먹거나 굶어”

구호 식량배급이 줄면서 난민 아동들이 하루에 한끼를 겨우 먹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후 하루 평균 두끼를 먹던 아동들은 올해 ‘최근 24시간 이내에 몇번의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9%가 한끼 밥을 먹었거나 먹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DRC), 레바논, 소말리아, 우간다 등 6개국 난민촌에서 식량 배급 감소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성인 9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족 구성원 중 굶주린 채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달했고, 밤낮으로 한끼도 먹지 못한 경험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도 46%였다. 배를 굶는 난민이 늘어나면서 아동을 둘러싼 위험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응답한 난민 가정 중 41%가 ‘아이들이 가정에서 폭력과 방임, 학대를 당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들이 조

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답한 부모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메리 은제리 월드비전 글로벌 기아 대응 책임자는 “기후 변화와 분쟁,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38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직면해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모들은 음식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을 노동으로 내몰고 결혼시키거나 심지어 자살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구호 지원을 시급히 늘려야 하며,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가족들이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출근+재택’ 직장인 만족도 높다

영국 직장인 79% “피로 덜해”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욕과 생산성도 높다는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업무공간 제공업체 인터내셔널워크플레이스그룹(IWG)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영국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출근-재택 병행 근무가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수준 등 전반적인 웰빙 측면에서 직장인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덜해졌다고 답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78%, 72%나 나왔다.

응답자의 68%는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68%였다. ‘건강한 식사 준비가 가능해졌다’와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58%와 54%였다. 응답자의 86%는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늘어난 자유시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아졌으며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76%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업무에 더욱 의욕적으로 됐다고 평가했으며,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대답도 74%나 됐다. /연합뉴스

파리 시민들 “올림픽 오지 마라”

물가·숙소 문제·범죄 기승 우려에 ‘보이콧’ 유도 영상 퍼트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2024년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파리에 오지 말라며 ‘보이콧’을 유도하는 영상을 퍼트리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틱톡 등에서 올림픽 기간 파리에 방문객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컨대 파리에 사는 프랑스계 미국인 미란다 스타르체비츠(31)는 작년 11월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전 엉망진창 그 자체”라고 말했다. ‘레노 노라’란 닉네임으로 틱톡에 동영상 올린 24세 현지 대학생은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말라”면서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가 위험하고 ‘생지옥’을 방불케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상 일부는 수만회에서 100만회 이상 재생됐다고 NYT는 전했다.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하계 올림픽 개최지 주민들이 이처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로 인해 물가와 숙소 문제가 심화하는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림픽 기간 파리 지하철 요금이 거의 갑절로 뛰는 것이나 각종 물가가 치솟을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나 테러가 발생할 수 있고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주민들도 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노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노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노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